

구약논단

제 15권 4호(통권 34집) 2009년 12월 31일

김 정훈(부산장신대) 칠십인경 바티칸 사본(Cod. B) 필사자 A의 특징:

사무엘하의 본문을 중심으로 **104**

본 논문은 사무엘하 본문을 중심으로 바티칸 사본 필사자 A의 특징을 다룬다. 본 논문에서 사무엘하의 이른바 카이게-개정본 본문을 검토한 결과 필사자 A는 주로 카이게 본문을 필사하였다. 그렇지만 필사오류나 사소한 이형들은 행간이나 난외에 표시하고, 필사자에게 중요하다고 여기는 이형들은 여러 본문 증거들을 결합한 본문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필사자 A는 나름의 본문비평 원칙에 따라 본문을 필사한 본문비평가로서의 모습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Kim, Jong-Hoon Besonderheiten des Cod. B unter Berücksichtigung des ersten

Abschreibers(A) ausgehend vom Text des 2. Samuelbuches **104**

칠십인경 바티칸 사본(Cod. B) 필사자 A의 특징: 사무엘하의 본문을 중심으로

김 정훈 | 부산장신대

1. 들어가는 말

주후 4세기에 필사된 바티칸 사본(Cod. B; 로마, Biblioteca Vaticana, Vaticani graeci 1209)은 헬라어로 기록된 구약과 신약의 본문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는 현존하는 최고(最古)의 필사본이다. 그래서 신약성경 본문비평은 물론 구약성경, 특히 칠십인경 본문비평에서 매우 중요하게 여겨온 본문증거이다. 바티칸 사본 이전의 필사본들은 모두 단편들이며, 더 광범위한 본문을 담고 있는 알렉산드리아 사본(Cod. A: 런던, British Library, Royal 1 D. V-VIII)은 주후 5세기에 필사되어 역사적 가치가 바티칸 사본보다 덜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영국에서 19세기 말부터 시작된 칠십인경 본문의 고문서본(diplomatic text) 편집 전통은 바티칸 사본을 편집의 주본문으로 두고 있으며,¹⁾ 독일 괴팅겐의 비평편집본(critical text) 전통에서도 가장 중요한 본문 증거로 취급된다.²⁾

1) A. Brooke/N. McLean(eds.), *The Old Testament in Greek according to the Text of Codex Vaticanus, supplemented from other uncial manuscripts* Vol. I/1-4; II/1-4; III/1,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06-1940).

2) A. Rahlfs (eds.), *Septuaginta Vetus Testamentum Graecum Auctoritate Academiae Scientiarum*




바티칸 사본은 가로·세로 27.5 센티미터 크기의 양피지³⁾ 768장에 성경 본문을 필사하여 코덱스(Codex)⁴⁾ 형태로 제본하였다. 따라서 전체 코덱스는 1536쪽이다.⁵⁾ 그런데 앞부분 1-40쪽(창 1: 1 - 46: 28)과 가운데부분 695-704쪽(+비어 있는 705-706쪽; 시 105: 27 - 134: 5), 그리고 뒷부분 1519-1536쪽(히 9: 14f.)은 원래 필사본이 소실되어 15세기에 소문자 필사본으로 보충되었다.⁶⁾ 구약성경에서 바티칸 사본은 대부분 세 단으로 나뉘어 필사하였지만,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욥기, 지혜서, 집회서는 두 단짜리이고, 에스더서부터는 다시 세 단이다.

바티칸 사본에서 개별 책의 구분은 책 첫머리의 꾸밈 제목과 마지막의 간행 요목(Kolophon)으로 나타낸다. 필사본은 낱말이나 문장을 띄어 쓰지 않아서 장절 구분이 명확하지는 않지만, 장 구분은 따로 되어 있지 않고, 책별로 단락을 알파벳으로 계수(enumerations)하였다. 절은 매절 끝에 윗점을 찍어 구분했다.

일반적으로 바티칸 사본은 이집트에서⁷⁾ 원래 두 명의 필사자(A와 B)가

Göttingensis editum,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31-현재). 두 비평편집본의 역사와 특성(고문서본과 비평편집본)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설명은 필자의 출처, 김 정훈, 「칠십인역 입문 - 본문의 역사와 연구의 실제 (유다·그리스도교 고전 입문 총서 1-1)」 (서울: 바오로딸, 2009), 268-278, 284-296쪽을 보라.

- 3) '양피지'는 기원전 2세기경 소아시아의 페르가몬(Pergamon)에서 만들기 시작한 것으로 여긴다. E. Würthwein, *Der Text des Alten Testaments*, (Stuttgart: Deutsche Bibelgesellschaft, 1988), 10쪽 참조. 칠십인역 필사본으로 오늘날까지 전해진 가장 오래된 양피지 필사본으로는 주후 2세기의 것으로 시편 양피지 두루마리의 단편(斷片)으로 보이는 2160: Montserrat, SBO, P.Monts./I Inv. 2 이다. 이 단편은 열 줄 정도의 본문을 담고 있으며 내용은 시 14편3-5절이다. 이에 관해, A. Rahlfs, *Verzeichnis der griechischen Handschriften des Alten Testaments* (MSU II), (Göttingen, 1914); D. Fraenkel (rev.), Bd. I, 1 *Die Überlieferung bis zum VIII. Jahrhundert* (Septuaginta Vetus Testamentum Graecum Auctoritate Academiae Scientiarum Göttingensis editum Supplementum),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2004), 247, 521쪽 참조 (이하 Rahlfs/Fraenkel, *Verzeichnis*).
- 4) 코덱스[라틴] codex=caudex; 나무 줄기, 서판書板)는 사용하기에 썩 편리하지 않았던 두루마리 필사본에서 주후 1세기 무렵 발전한 형태로 적당한 크기의 낱장을 제본한 초기 책의 형태를 일컫는 말이다.
- 5) 바티칸 사본의 특징에 대한 좀 더 자세하고 일반적인 설명은, Rahlfs/Fraenkel, *Verzeichnis*, 337-344쪽.
- 6) 프랭켈(Rahlfs/Fraenkel, *Verzeichnis*, 337)은 오경 마지막인 238쪽과 제2 에스드라스서 마지막인 624쪽에 두 번 소문자로 필사된 "클레메스 모나코스"(Klh,mhj Monaco,j)라는 이름을 탈문(脫文)의 보충자로 여긴다.
- 7) A. Rahlfs, "Alter und Heimat der vatikanischen Handschrift," *Nachrichten von der (Kgl.) Gesellschaft der Wissenschaften zu Göttingen* (1899), 72-79쪽; J. Šagi, "Problema historiae codicis B," *Divus Thomas* 75 (1972), 3-29쪽 = T. C. Skeat, "The Codex Vaticanus in the

필사하였다고 여긴다. 필사자A는 먼저 창 1장 1절 - 왕상 19장 11절까지 필사하였고 나머지 역사서, 시가서, 예언서, 신약은 필사자B가 필사하였다는 것이다.⁸⁾ 그에 대한 근거로는 (1) 필사자A는 간행 요목(colophons)에 항상  표시를 쓴다는 점과 필사자B는 제목(titles)의 글자 아래를  표시로 자주 꾸민다는 점, (2) 필사자A가 행 채우기 기호(filling sign; Zeilenfüller)  를 필사자B에 비해⁹⁾ 현저히 자주 쓴다는 점, (3) 필사자A는 산문에서 새로운 단락의 새로운 줄에서 시작하는 경향이 있었다는 점 등이다. 프랭켈은 그와 더불어 성명축서법(聖名縮書法, scriptio nominis sacri)¹⁰⁾이나 개별 철자에서도 차이가 난다는 관찰을 하였다.¹¹⁾ 그러나 서로 다른 필사자의 외형적 필사 차이점들은 눈에 금방 드러나게 일관적이지는 않으며 개별 책마다 조금씩 다른 양상을 보인다. 그럼에도 바티칸 사본이 적어도 두 명의 서로 다른 필사자가 필사하였다는 사실만큼은 분명하다.

본고에서는 칠십인경에서 여러 본문 형태가 공존하여 본문비평과 본문의 역사에 문제점들이 드러나 있는¹²⁾ 사무엘하의 본문(필사본 354-394쪽)을 주로 살펴볼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필사자A의 필사본문과 그 특징만 다르게 될 것이다. 그동안 칠십인경의 본문에 대한 대부분의 연구에서 바티칸 사본은 가장 중요한 자리를 점유하여 왔다. 그 말은 대부분 바티칸 사본에 있는 본문을 가장 오래된 칠십인경 본문으로 여겨왔다는 의미가 된다. 그러나 바티칸 사본의 본문 형태를 근거로 이 문제를 세밀히 이룬 연구는 그리 흔

Fifteenth Century," J. K. Elliot(ed.), *The collected Biblical Writings of T. C. Skeat*, (Leiden: Brill, 2004), 122-134, 특히 122쪽 참조; B. J. Roberts, "The Old Testament: Manuscripts, Text and Versions," J. Maier/V. Tollers(ed.), *The Bible in its Literary Milieu*, (Grand Rapids, MI: Eerdmans, 1979), 212-234쪽. 한편 스킷은 시나이 사본과의 연관성, 콘스탄틴의 편지 등을 근거로 바티칸 사본이 가이사라에서 필사되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이 주장에 대해 T. C. Skeat, "The Codex Sinaiticus, the Codex Vaticanus and Constantine," *JThS* 50 (1999), 583-625쪽을 보라.

8) H. J. M. Milne/T. C. Skeat, *Scribes and Correctors of the Codex Sinaiticus*, (London: British Museum, 1938), 87-90쪽을 참조. 이 책에서는 바티칸 사본의 필사자A가 시나이 사본의 필사자D와 동일인이라고 주장한다 (이하 Milne/Skeat).

9) 마인(Milne)에 따르면, 필사자B는 이 행 채우기 기호를 구약성경에서는 필사본 571쪽에 세번, 신약성경에서는 필사본 1404쪽에 한 번만 사용하였다. 이에 관해, Milne/Skeat, *Scribes and Correctors*, 88 참조.

10) 성명축서한 테오스, 퀴리오스, 다윗, 이스라엘 등의 헬라어는 그대로 다 쓰지 않고, 줄여서 쓰는 대신 윗줄을 그어 표시했다. 곧 '하나님' qeo,j은 qj로, 야훼를 뜻하는 '퀴리오스' ku,rioj는 kj로, '다윗' Dauid은 Dad로, '이스라엘' Israhel은 Ihl로 쓰는 등이다.

11) Rahlfs/Fraenkel, *Verzeichnis*, 338-339쪽.

12) 이 문제는 아래 "3. 바티칸 사본 필사자A의 필사 본문 형태"에서 본격적으로 다룰 것이다.

하지 않다.¹³⁾

이에 본고에서는 먼저 바티칸 사본 필사자 A의 외형적 필사 특징을 살펴본 뒤, 사무엘하의 다양한 본문 형태와 본문 증거들을 비교하여 바티칸 사본 필사자 A의 필사/개정 특징을 고찰할 것이다. 이로써 칠십인경 사무엘서의 본문 형태를 바티칸 사본의 본문으로 가늠해 보고 주후 4세기 본문 전승의 전통을 재구성해 보려고 한다.

2. 바티칸 사본 필사자 A의 행간/난외 본문 수정

바티칸 사본의 필사자 A는 종종 필사한 본문을 그대로 둔 채 행간(suprascr)이나 난외(mg)에 수정 본문을 제안하였다.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예가 필사오류에 대한 행간 수정이다.¹⁴⁾ 그 가운데 삼하 15장 27절에서 한 예를 살펴보자.¹⁵⁾



그림 1. Cod. B 378쪽, 제1단, 삼하 15: 27 일부

이 구절의 원래 본문은 다음과 같다: ΟΙ ΔΥΟ ΥΙΟΙ ΤΩΝ ΜΕΤΡΩΝ (‘너희와 함께 있는 너[회의] 두 아들들’). 하지만 필사자 A는 실수로

13) 바티칸 사본의 구약성경 본문, 특히 사무엘서에 관한 연구로는 G. Höcker, “Die Varianten des cod. Vaticanus der Samuelbücher und ihre Bedeutung für die Textkritik,” (Dissertation an der Universität Rostock, 1905); S. Pisano, *Additions or Omissions in the Books of Samuel* (OBO 57), (Freiburg/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84)를 들 수 있다. 그러나 이 연구들은 바티칸 사본의 사무엘서 본문을 분석하고 있지만, 아래에서 다룰 본문 형태와 본문 증거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을 제공해 주지는 않는다.

14) 사무엘하의 필사본에서 행간 필사오류 수정은 다음 구절들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삼하 6장 1절: NEANIAN B^{ab}] NEAN B*; 삼하 10장 18절: KAI EFUGEN SURIA(mg) Bab] KAI EFUGEN (-) B*; 삼하 18장 17절: EP AUTON Bab] (-) AUTON B*; 삼하 18장 28절: EIRHNH KAI PROSEKUNHSEN Bab] (-) PROSEKUNHSEN B*; 삼하 19장 38(39)절: CAMAAM Bab] CAAM B*; 삼하 22장 3절: UPERASPISTHS Bab] UPERASPITHS B* (이 경우에는 행간 수정suprascr이나 난외 수정mg이 아니라 I와 T 사이의 공간에 빠진 S를 작은 글씨로 추가하였다); 삼하 22장 18절: ERRUSATO Bab] ERUSATO B*; 삼하 22장 13절: KASWN Bab] KAWN B* 등.

15) 본 연구를 위해서 필자는 1999년에 발간된 바티칸 사본의 영인본을 사용하였다: Istituto Poligrafico e Zecca dello Stato(ed.), *Bibliothecae Apostolicae Vaticanae Codex Vaticanus Graecus 1209. Bibliorum Sacrorum Graecum Codex Vaticanus B*, (Rom: Istituto Poligrafico e Zecca dello Stato, 1999). 이 영인본은 원본의 질감이나 필사 형태, 훼손 상태 등 모든 것을 가능한 한 원본과 흡사하게 만들어서 연구하는 이들에게 많은 도움을 준다.

UMWN의 “MWN”을 빠뜨렸다. 그래서 행간에 수정본문을 써넣었다.

그런가 하면 필사자A는 행간에 수정 본문의 표시가 충분하지 않다고 여겨질 경우 해당 낱말 위에 표시를 하고 난의(mg)에 써넣기도 하였다. 삼하 4장 11절의 예를 들어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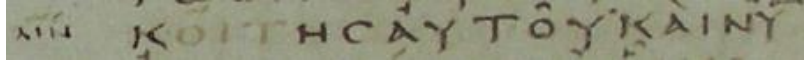


그림 2. Cod. B 360쪽, 제2단, 삼하 4:11 일부

위의 그림은 삼하 4장 11절의 한 부분이다: [EPI THS] KOITHS AUTOU (“그의 침상[에서]”)이다. 여기서 필사자 A에게 문제가 된 낱말은 “침상”을 뜻하는 “KOITH”였다. 무슨 이유에서인지 그는 동의어인 “KLINH”로 본문을 수정하고자 하였다. 그래서 이번에는 행간에 수정 본문을 쓰는 대신, 바꾸어 야할 철자 “OIT”위에 “~”표시를 하고 단 왼편에 그 표시를 다시 쓴 뒤 “LIN”이라고 수정본문을 써 주었다. 중세시대의 수정자는 “OIT”위에 다시 한 번 잉크를 덧칠해서(re-ink)¹⁶⁾ 명확히 수정되어야 할 본문을 알아보기 쉽게 하였다.

위의 경우와는 달리 수정 제안 본문이 본문비평적 관점에서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곧 마소라 본문으로 이어진 본문 전통(Proto-MT)에 따라 수정할 것을 제안하기도 하였다. 삼하 10장 17절의 예를 들어보자.

16) 바티칸 사본의 본문에 덧칠을 한 수정자가 중세의 인물이라는 사실에 대해 필자는 두 가지 근거를 가지고 있다. 첫째 앞서 언급한 대로 사본의 탈문이 15세기에 소문자 사본으로 보충되었다는 점이다. 이는 이때에 바티칸 사본을 대대적으로 손질했을 것이라는 뜻이 된다. 더 명확한 근거는 덧칠의 경향이다. 대부분의 덧칠은 “이동자음 n(뉴)”에 하였는데, 필자의 관찰에 따르면 이 덧칠은 중세 비잔틴 문법규칙(Schulregel)에 따르고 있다. 곧 바티칸 사본 원본에서 보듯 “이동자음 n(뉴)”를 후행자음의 여부와는 상관없이 다 쓰던 헬레니즘 시대의 현상과는 달리, 음운충돌(hiatu)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 낱말이 모음으로 시작할 때, 그 사이에 이동자음 n(뉴)를 삽입하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필자의 다음 줄저를 참조하라. Kim, Jong-Hoon, *Die hebräischen und griechischen Textformen der Samuel- und Königebücher. Studien zur Textgeschichte ausgehend von 2Sam 15,1-19,9* (BZAW 394), (Berlin: Walter de Gruyter, 2009), 89-94, 특히 92쪽 각주 52). 바티칸 사본에 나타나는 이 현상은 이미 바티칸 사본 영인본의 편집자 가운데 한 사람인 피사노(S. Pisano)도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바티칸 사본의 헬라어는 언제나 -i- 대신 -ei-를 사용하고 이동자음 -n를 늘 쓴다 (하지만 필사본을 덧칠(re-ink)한 수정자에 의해 일괄적으로 바뀌었다)”(바티칸 사본의 영인본의 서문, *Prolegomena*, 34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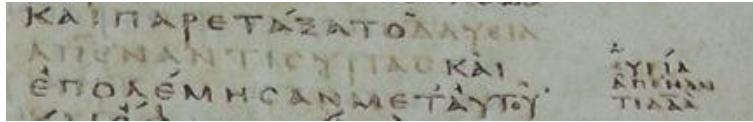


그림 3. Cod. B 367쪽, 제3단, 삼하 10:17 일부

문제가 되는 바티칸 사본의 본문은 KAI PARETAXATO DAUEID APENANTI SURIAS (“그리고 다윗이 아람 사람들을 향하여 진을 쳤다”)이다. 그런데 필사자 A는 “다윗이 아람 사람들을 향하여”라는 구절 첫머리에 “~” 표를 하였다. 그리고 같은 표시와 더불어 난외에 SURIA APENANTI DAD(“아람 사람들이 다윗을 향하여”)로 수정 본문을 제시하였다. 이 수정 본문은 다름 아닌 마소라 본문의 전통에 따른 것이다(MT: וַיִּשְׁכַּח אֱרָם לְקִרְיָת גִּזְרִי). 필사자 A는 비록 마소라 본문과는 다른 헬라이어 본문 전통을 받아들여 필사하였지만, 그와는 다른 본문의 전통을 난외 본문을 통해 알려 주고 있다.¹⁷⁾ 이 경우에도 중세의 수정자는 해당본문에 덧칠을 하였다.

이상의 예들은 바티칸 사본의 필사자 A가 본문을 필사하면서 또는 필사한 뒤에 필사 오류나 다른 본문 전승을 표시해 주었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준다. 이와 같이 필사자 본인이 직접 한 수정 본문들은 케임브리지 대비평본(Br.-M.)에서 본디 필사 본문을 뜻하는 B^a와 구분하여 B^{a*}로, 중세의 수정자가 한 덧칠은 B^b로 소비평각주에 표시되어 있다.¹⁸⁾

3. 바티칸 사본 필사자 A의 필사 본문 형태

바티칸 사본 필사자 A의 필사 본문 형태를 논하기 위해서는 먼저 칠십인경 사무엘서의 본문 역사를 간략하게 언급해야 한다.¹⁹⁾ 바티칸 사본을 중심으

17) 이런 경우의 수정은 다음의 구절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삼하 3장 8절: PERI(suprascr) GNWRIMWN B^{ab}(= וְאֵל-מְרַעְוּ MT)] (-) GNWRIMWN B^a; 삼하 22장 3절: FULAX MOU(suprascr) ESTAI MOI B^{ab}(비교 וְיָצָא MT)] FULAX ESTAI MOI B^a.
 18) 세계적으로 널리 쓰이는 이른바 괴팅엔 대비평편집본은 아직 사무엘서가 완성되지 않았다. 그리고 랄프스가 만든 소비평편집본에서는 아예 언급조차 없다.
 19) 칠십인경 사무엘서의 본문 형태와 그 역사의 연구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필자의 줄저, Kim, Jong-Hoon, *Die hebräischen und griechischen Textformen*, 4-32쪽을 참조하라. 그리고 간략한 연구사 요약과 본문의 역사에 대한 논의는 필자의 줄고, Kim, Jong-Hoon, “Zur Textgeschichte von Samuel-Könige an Hand von 2.Sam 15,1-19,9,” M. Karrer/W. Kraus(eds.), *Die Septuaginta-Texte. Kontexte, Lebenswelten* (WUNT 219), (Tübingen: Mohr-Siebeck, 2008), 353-368쪽과 김 정훈, “칠십인경 사무엘-열왕기서의 본문 형태와 그 역사,” *Canon&Culture* 5

로 한 다수 필사본들이 반영하는 칠십인경 사무엘서의 본문에는 크게 두 가지의 본문 형태가 번갈아 나온다. 먼저 사무엘상(aa)과 삼하 1장 1절 - 11장 1절(bb),²⁰⁾ 그리고 왕상 2장 12절 - 21장 43절(gg)에는 이른바 원-칠십인경(Ur-LXX; Old Greek) 본문이 필사되어 있고, 삼하 11장 2절 - 왕상 2장 11절(bg)과 왕상 22장 1절 - 왕하 25장 30절(gd)에는 초기 헬라 유대주의 개정본으로 여기는 이른바 “카이게-개정본”(kaige-recension)²¹⁾이 주로 필사되어 있다. 이 개정본은 원어 중심 번역을 지향하여 히브리어를 아는 사람이 읽으면 원어를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지만, 헬리어만 아는 사람에게서는 매우 낮은 직역 투의 번역이다.²²⁾ 이 본문 형태는 기원전 1세기 - 기원후 1세기 무렵 초기 헬라 유대주의가 랍비들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나가면서 그에 영향받은²³⁾ 개정본이다. 대부분의 칠십인경 필사본들이 바티칸 사본의 필사 전통을 따르기 때문에 bg와 gd부분의 원-칠십인경 본문 형태를 재구성하기가 매우 어려웠다. 그러나 19세기 중반 이후부터 최근에 이르는 연구 결과²⁴⁾ 몇몇 중세 필사본들(boc₂e₂=19 108 82 127 93)²⁵⁾에 남아

(2009), 181-210쪽을 참조하라.

- 20) 이 경계를 10장이 아닌 11장 1절에서 나눈 데 대해서는 필자의 졸고, 김 정훈, “칠십인경 사무엘-열왕기서의 본문 형태와 그 역사,” 185쪽 각주 9를 보라.
- 21) 이 용어는 본디 바르텔레미가 자신의 저서, D. Barthélemy, *Les Davanciers d'Aquila* (VTS 10), (Leiden: Brill, 1963), 31-47쪽에서 이 본문 형태를 “groupe kaige”라 일컬은 데서 비롯하였다.
- 22) 카이게-개정본의 대표적인 특징 몇 가지를 들자면, ① ‘각자’의 의미로 쓰인 **אִי**의 번역으로 의미에 맞는 **elkastoj** 대신 **avnhr**, ② **אִי**의 번역으로 **avpo**,이나 **avpanw** 대신 **evpanwqen** **\$avpanwqen%**, ③ **כּ** - **כּ** **ג**를 무리하게 어근에 따라 **sthlo,w**로 번역함, ④ 뿔나팔과 금관악기의 구분 - **קֶרַת**는 **kerati,nh**로 번역하고, **קַ** **ן**는 **sa,lpinx**로 번역함, ⑤ 역사적 현재 시제가 쓰이지 않음, ⑥ 문맥의 시제와 상관없이 **יָ** **א**를 **kai. evsti**,로 번역함, ⑦ 일인칭 대명사의 짧은 형태 **אֲנִי**와 구분되는 긴 형태 **אֲנִי**는 정동사 앞에서까지도 무조건 **evgw. eivmi**로 번역함, ⑧ **אֵל** **ק**의 번역으로서 **eivj avpanth,n** 등이다. 이에 대해 H. St. J. Thackeray, *The Septuagint and Jewish Worship. A Study in Origin*, (London: Oxford Univ. Press, 1921), 114-115쪽과 Barthélemy, *Les Davanciers d'Aquila*, 48-80쪽을 참조하라.
- 23) 초기 헬라 유대이즘에서는 히브리어 본문의 모든 자음 요소가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고 보았다. 그래서 아무리 사소한 불변화사(가령, nota-accusativi, 정관사 등)라 하더라도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사상을 발전시켰다. 초기 유대이즘의 성경해석에 대해서는, 권터 스텐베르거, 「미드라쉬 입문(유다-그리스도교 고전 입문 총서 III-2)」 (이 수민 옮김)(서울: 바오로딸, 2008), 70-89쪽을 보라. 이 관점에서 보면, 칠십인경의 번역도 히브리어의 요소를 충실히 반영해야 하기 때문에 번역어 중심이 아니라 당연히 철저한 원어 중심의 번역이어야 한다.
- 24) 최근의 연구동향이나 견해에 대해서는 필자의 졸저, Kim, Jong-Hoon, *Die hebräischen und griechischen Textformen*과 S. Kreuzer, “Towards the Old Greek: New Criteria for the Analysis of the Recensions of the Septuagint, Especially the Antiochene/Lucianic Text ans Kaige Recension,” M. K. H. Peters, *XIII Congress of the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eptuagintand Cognate Studies* (SCS 55), (Ljubljana, 2007; Atlanta: SBL, 2009), 239-253쪽을 참조해 보라.

있는 이른바 “안디옥(루키안) 본문”(The Antiochene/Lucianic Text)²⁶⁾의 형태가 카이게-개정본보다 더 오래되어 원-칠십인경을 반영한다고 본다. 따라서 바티칸 사본이 카이게-개정본(이하 KR)을 필사한 부분에서는 반드시 안디옥 본문(이하 Ant)과의 비교가 필수적이다. 더불어 이 본문 형태들은 오리겐의 헤사플라 본문증거(이하 O')나 콤파 사무엘 본문(4Q51=4QSam^a; 4Q53=4QSam^c), 그리고 마소라 본문(이하 MT)과 비교하여 본문의 역사를 재구성해야 한다.

우리는 이제 바티칸 사본 필사자 A가 필사한 사무엘하의 본문 가운데 특히 카이게-개정본을 주로 필사한 βx의 몇 가지 예를 통해²⁷⁾ 바티칸 사본이 사무엘서의 복잡한 본문 역사의 어떤 지점에 있고 필사자는 거기에서 어떤 역할을 하였는지를 가늠해 보고자 한다.

1) 카이게 개정본 본문 필사

위에서 언급한 대로 bg 부분에서 바티칸 사본 필사자A는 카이게-개정본을 주로 필사하였다. 삼하 15장 2절의 한 부분을 예로 들어보자. 이 구절에서 바티칸 사본은 다른 본문 증거들(4QSam^a, Ant,²⁸⁾ O', MT)과는 달리 KR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MT	KR (=Cod. B)	Ant
אֲנִי אֶבְיָא	kai. evbo.hsen	kai. evka.lei
אֲנִי אֶבְיָא	pro.j auvto.n Abessalwm	auvto.n Abessalwm

〈표1〉

- 25) 19세기 중반부터 안디옥 교부들의 성경 인용과 비교하여 인식된 이 중세 필사본들은 다음과 같다: b' (19): 로마, *Biblioteca Vaticana* 소장, *Chis. Gr. 30 (olim R. VI. 38)*, 주후 11 - 12세기, 양피지, 전체 376매; b (108): 로마, *Biblioteca Vaticana* 소장, *Vat. gr. 330*, 주후 13 - 14세기, 종이, 전체 513매; o (82): 파리, *Bibliothèque Nationale* 소장, *Coislin 3*, 주후 12세기, 양피지, 전체 242매; c₂ (127): 모스크바, *Synodal Bibliothek* 소장, *Gr. 31*, 주후 10세기, 양피지, 전체 440매; e₂ (93): 런던, *British Museum* 소장, *Royal 1 D. II*, 주후 13세기, 양피지, 전체 216매.
- 26) 용어에 대한 설명으로는 필자의 줄고, 김 정훈, “칠십인경 사무엘-열왕기서의 본문 형태와 그 역사”, 195-196쪽 각주 26)을 보라.
- 27) 여기에서 제시되는 예들은 필자의 줄저, Kim, Jong-Hoon, *Die hebräischen und griechischen Textformen*에서 한 연구가 주로 바탕을 이루고 있음을 밝힌다. 특히 이 책 410쪽에 바티칸 사본의 특징에 관하여 요약하였으니 비교해 보라.
- 28) 본고에서 안디옥 본문은 앞서 언급한 다섯 중세 필사본을 중심으로 만든 다음 편집본에서 인용한다. N. Fernández Marcos/J. R. Busto Saiz, eds., *El Texto Antioqueno de la Biblia Griega I. 1-2 Samuel*, (Madrid: Instituto de Filología C.S.I.C., 1989).

먼저 바티칸 사본의 proj auvto.n은 히브리어 본문 וְלֵאמֹר을 직역한 것으로 보인다. 히브리어에서 동사 אָרָא가 일반적으로 전치사 ל을 수반하지만, 헬라어에서 타동사 boā,w의 목적어로서 proj auvto.n는 문법적으로 잘못된 번역이다. 이 동사는 전치사구가 아니라 Ant(auvto.n; boc₂e₂z^{ms})에서처럼 대격 목적어를 수반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동사 kale,w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그렇기 때문에 Ant의 번역은 ל나 לו에 대한 문법적으로 올바른 헬라어 번역인 반면에 KR는 히브리어 본문의 무조건적 직역이다. 이는 원어 중심의 직역을 지향한 카이게 개정본의 전형적인 경향이다.

그 다음으로 바티칸 사본과 Ant는 어순이 MT와 다르다. Ant의 어순은 4QSam^a([וְלֵאמֹר וְאָרָא])의 뒷받침을 받는다.²⁹⁾ 따라서 바티칸 사본이나 Ant의 본문 전통은 모두 MT와는 다른 히브리어 대본(Vorlage)을 전제하며 원-칠십인경으로 거슬러 올라간다고 볼 수 있다. 한편 헥사플라(O')의 본문 증거로 여겨지는³⁰⁾ 알렉산드리아 사본(A)과 두 개의 중세 소문자 필사본(cx)³¹⁾은 MT의 전통에 영향을 받은 번역을 보여준다:

evbo,hsen Abessalwm proj auvto,n = לו ב לו ר ו

결국 바티칸 사본의 본문 형태는 Ant가 반영하는 원-칠십인경을 히브리어 본문에 충실하게 직역하여 개정한 KR의 본문을 필사하였다고 할 수 있다.

2) 헥사플라를 통한 카이게 개정본 필사(삼하 15: 12)

아래 표에서 보듯 이 구절에서 랄프스의 소비평편집본(LXX-Ra)의 본문³²⁾은 Ant와 동일하다. 그러나 바티칸 사본에 필사되어 있는 원래의 KR은 랄프스의 편집본과는 다름을 확인할 수 있다.

29) F. M. Cross 들(eds.), *Qumran Cave 4 XII 1-2Samuel* (DJD XVII), (Oxford: Clarendon Press, 2005), 154쪽.

30) 이 필사본들과 헥사플라 사이의 관계에 대한 대표적 연구로는 Bo Johnson, *Die hexaplarische Rezension des 1. Samuelbuches der Septuaginta*, (Lund: Håkan Ohlssons Boktryckeri, 1963)을 들 수 있다.

31) c (376): Escorial, Real Biblioteca, Y (griech.)-II-5, 15세기; 종이; 전체 102매; x (247): 로마, Biblioteca Vaticana, Urbinatos graeci 1, 12세기, 양피지, 전체 134매.

32) A. Rahlfs(ed.)/R. Hanhart(rev.), *Septuaginta. Editio altera*, (Stuttgart: Deutsche Bibelgesellschaft, 2006), 595쪽.

MT	Cod. B	LXX-Ra	Ant
וישלח אבשלום	KAI APESTEILEN ABESSALWM	kai. avpe,steilen Abessalwm ‛kai. evka,lesen‛	kai. avpe,steilen Abessalwm ‛kai. evka,lese‛
את-אחיתופל הנ לני	TW ACEITOFEL TW QEKWNEI	to.n Acitofel to.n Gelmwnai/on‛	to.n Acitofel to.n Gelmwnai/on‛
יועץ	SUMBOULON	to.n ^f su,mboulon	to.n ^f su,mboulon
דוד	DAUEID	Dauid	Dauid

〈표2〉

첫째, V12⁷⁻⁷

Ant+(*boc*₂*e*₂*MN* *rell*)³³)는 MT와는 달리 kai. evka,lese[n]이 더 있다. 그에 비해 KR(BA_{a2})와 헥사플라 본문(O')³⁴)에는 MT와 마찬가지로 이 표현이 없다. 랄프스는 여기에서 평소 자신의 편집 경향이었던 Codd BA의 본문을 따르지 않고 Ant+에 있는 본문을 더 오래된 전통으로 여겨 주본문으로 택하였다. Ant+의 본문은 4QSam^c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אחיתופל (וי לני).³⁵ 원래의 KR에는 kai. evka,lese[n]이 없으므로 “아히도벨”도 앞에 있는 동사 “kai. avpe,steilen” 과 바로 연결되어 여격(tw)인 것이다.

둘째, V12¹

여기에서는 아히도벨의 고향 명칭에 대한 음역이 문제가 된다. 랄프스는 Ant의 전통(아래 음역-③)에 따라 본문을 편집했지만, 헬라어 필사본들의 전통은 아래에서 보듯이 매우 다양하다.

33) 여기서 필자가 쓰는 Ant+는 앞서 언급한 다섯 중세 소문자 필사본 외에 Ant와 동일한 본문의 형태를 반영하는 필사본들이 다수 있음을 뜻한다. 더불어 필사본의 인식 기호나 본문 비평 기호들은 Br.-M.의 것을 썼음을 밝혀 둔다. 그 이유는 사무엘서 본문의 소문자 필사본 본문 증거가 있는 유일한 편집본이 Br.-M.이기 때문이다. Br.-M.을 비롯한 여러 비평편집본들에 대한 설명과 본문비평 기호 풀이는 필자의 저서, 김 정훈, 「칠십인역 입문」, 259-296쪽을 보라. 그리고 여기에서 인용된 대문자 필사본 두 개도 소개한다. M (Codex Coislianus): 파리, Bibliothèque Nationale, Coislin 1, 7세기, 양피지, 전체 227매; N(V; Codex Venetus): 로마, Biblioteca Vaticana, Vat. gr. 2106, 8세기, 양피지, 전체 132매.

34) 헥사플라 본문 증거는 필드(F. Field)의 다음 편집본을 참조하였다. F. Field(ed.), *Origenis Hexaplorum quae supersunt: sive veterum interpretum graecorum in totum vetus testamentum fragmenta I*, (Oxford, 1867; reprinted Hildesheim: Georg Olms, 1964), 568쪽.

35) *DJD* XVII, 264쪽.

- ① tw/| qekwnei. O'B; tw/| qekwnei.j a₂;
- ② tw/| gilwnai/w| A; tw/| silwnai/w| cx;
- ③ to.n gelmw nai/on *boc₂e₂^{mg36}*; to.n celmw nai/on b';
to.n gwlamw nai/on *MNa^{a2}z^{xt}rel³⁷*

바티칸 사본과 헥사플라의 음역-①은 **קקני**를³⁸⁾ Ant의 음역-③은 **קני**를 전제한다. 반면에 이 경우 헥사플라 전통을 반영하지 않는 알렉산드리아 사본의 음역-②는 MT와 동일한 히브리어 본문(**קני**)의 음역인 것으로 보인다. 4QSam^c에서는 자음 일부인 []가 남아 있다. 이 자음이 음역-①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분명하다. 그렇다고 음역-②나 음역-③ 가운데 어느 하나와 일치한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그러나 요세푸스(Jos. Ant. VII 197쪽)의 음역을 근거로 보면 비록 용례로나 지리적으로나 정확히 규명할 수는 없지만 Ant의 전통이 적어도 주후 1세기까지는 거슬러 올라갈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바티칸 사본이 이 고유명사의 음역을 헥사플라 전통에서 이어받았음도 알 수 있다.

셋째, V12^f

여기에서 필사본 Acx에는 여격 정관사와 명사가 쓰였고(tw/| su,mboulw) 필사본 Ba₂에는 정관사 없이 대격 명사가 쓰였다(su,mboulon). 바티칸 사본의 전통은 개정 과정에서 히브리어 본문에 맞추어 정관사를 뺐지만, 명사의 격변화는 미처 수정하지 않은 형태라 할 수 있겠다. 정관사를 뺐 것이 KR 단계인지 헥사플라에서인지 바티칸 사본의 필사자 A인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히브리어 본문 전통을 바탕으로 수정을 시도했다는 것만은 분명하다. 그에 비

36) 비교, 요세푸스의 「유대고대사」 o` Dau, dou su,mbouloj o` *Gelmw nai/oj* VAcito, feloj (Jos. Ant. VII 197쪽).

37) 그 밖에 히브리어 본문 **קני**를 전제하는 소수의 음역 이형들이 있다: to.n gwlamonai/on j; to.n golamw nai/on e-hp; to.n galamw nai/on nuv^b; gwmonai/on a*; twlamw nai/on vy*.

38) 히브리어 동사 **קני**는 전도서에서 세 번 쓰이는 낱말(전 1: 14; 7: 13; 12: 9)로 “곧다, 곧게 하다”는 뜻이다. 이런 지명이 있었는지는 불확실하나 바티칸 사본이 히브리어 자음에 바탕을 두고 있는 것은 확실하다. 한편, 카일 맥카터나 슈퇴베는 삼하 14장 2절의 용례(**קני**=Qekwe; 드고 아)에 비추어 본디 히브리어 대본은 **קני**이며 “n(누)”가 잘못 삽입된 것이라고 추측한다. 참조: P. Kyle McCarter, *II Samuel* (The Anchor Bible 9), (Garden City/New York: Doubleday & Company, 1984), 355쪽; H. J. Stoebe, *Das zweite Buch Samuelis* (KAT VIII₂), (Gütersloh: Gütersloh Verlaghaus, 1994), 357쪽.

해 Ant+(*boc₂e₂MN rell*)에서는 대격 정관사와 명사가 바르게 쓰였다(to.n su,mboulon).

이상의 관찰을 바탕으로 이 본문에서는 다음과 같은 세 개의 서로 다른 본문 전통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O'Ba ₂	Acx	Ant
kai. avpe,steilen	kai. avpe,steilen	kai. avpe,steilen
Abessalwm	Abessalwm	Abessalwm
tw/ Acitofel	(cx: kai. evka,lese)	kai. evka,lese
tw/ qekwnei.\$j%	tw/ Acitofel	to.n Acitofel
su,mboulon Dauid	tw/ gilwnai/w (cx: silwnai/w)	to.n gelmw nai/on
	tw/ sumbou,lw Dauid	to.n su,mboulon Dauid

〈표3〉

이 전통들은 단순히 헬라어의 문제가 아니라 앞서 살펴보았듯이 서로 다른 히브리어 대본의 전통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우선 MT와 원-칠십인경 (=Ant)의 대본/4QSam^c는 분명히 다른 본문 전통이었을 것이다. 여기에 KR도 나름의 히브리어 대본 전통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라 추측할 수 있다. KR는 헤사플라가 받아들였고, 바티칸 사본으로 이어져서 더 나아가 알렉산드리아 사본에서도 일부 반영되었다. 이 말은 KR은 우선 오리겐이 헤사플라를 편집할 때도 이미 존재하고 있었으며, 헤사플라에 반영된 KR은 직간접적으로 그 이후의 필사본에 영향을 미쳤다는 뜻이 된다. 결국 바티칸 사본의 필사자 A도 사무엘하의 본문을 필사할 때 헤사플라의 영향에서 자유롭지는 않았다고 보아야 한다.

3) 여러 본문 형태의 결합

(1) Proto-MT의 전통과 카이게 개정본 결합 (삼하 15: 19b-20)

이 구절의 바티칸 사본(Bha₂)에는 번역이 중복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 먼저 여러 본문의 전통을 비교하여 보자. * 표는 헬라어에서 거꾸로 번역한 히브리어 본문이다.

MT	Cod. B	O'(א)	Ant
וכי*	kai. o[ti	kai. o[ti	kai. o[ti
גלה אתה*	metw, l khkaj su.	metw, l khkaj su.	metw, l khkaj su.
למקומך*	evk tou/ to,pou sou	evk tou/ to,pou sou	evk tou/ to,pou sou
המול*	eiv evcqe.j	eiv evcqe.j	eiv evcqe.j
בואך*	parage,gonaj	parage,gonaj	parage,gonaj
ה ום*	kai. sh,meron	kai. sh,meron	kai. sh,meron
אנועך*	kinh,sw se	kinh,sw se	kinh,sw se
עמנו*	meqV h`mw/n	meqV h`mw/n	tou/ poreue,sqai
ללכה*		(poreuqh/nai)	meqV h`mw/n
וגם*	kai. ge		
גלה אתה*	metanasth,seij		
למקומך*	to.n to,pon sou		
המול*	evcqe.j		
בואך*	h` evxe,leusi,j sou		
ה ום*	kai. sh,meron		
אנועך*	metakinh,sw se		
עמנו*	meqV h`mw/n		
ללמה*	tou/ poreuqh/nai		

〈표4〉

KR는 오리겐의 칠십인경 본문과 고대 라틴어 번역(Vetus Latina: L) 본문에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KR와 Ant의 차이는 별로 크지 않다. 곧 Ant에 한 번 인칭대명사가 삽입되어 있으며, 단어의 순서가 한 번 차이나는 정도이다.

바티칸 사본은 여기에 Proto-MT의 전통을 덧붙였다. 이 구절의 히브리어 구문은 “노여움의 거절”(die entrüstete Ablehnung)³⁹⁾을 뜻하는 의문문이다. 그런데 바티칸 사본은 이 구문을 거의 MT 전통과 글자 그대로 동일하게 반복하여 옮겼다. 사실 첫 번째 구절의 헬라어 번역은 MT와는 조금 차이가 있다. 그러나 바티칸 사본의 반복 구문은 MT와 거의 일치한다. 따라서 바티칸 사본의 필사자A는 분명히 KR의 전통과 반복 구문에 반영된 MT의 전통을 모두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그는 이 두 전통 가운데 어느 하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전해진 두 전통을 결합하여 다음과 같이 한층

39) 이에 대해, Stoebe, *Das zweite Buch Samuelis*, 364쪽; BroS §54d; GK §150a를 보라.

더 강조된 구문을 만들었다(기울임꼴: 비교 본문, 밑줄: 중복 번역 부분).

¹⁹그리고 왕(다윗)이 겐타이 사람 엷티에게 말했다. “왜 그대도 우리와 함께 가려 하는가? 되돌아가서 왕(압살롬)과 함께 있으라. 이는 그대가 타지 사람이기 때문이요, 또 그대가 그대의 거주지에서 떠나 왔기 때문이다.²⁰그대는 어제 왔는데 오늘 내가 그대를 우리와 함께 데려 가겠는가? 그러면 그대는 또 그대의 거주지를 떠나겠는가? 어제가 그대가 나온[날]인데 오늘 내가 그대를 우리와 함께 데리고 가겠는가?...(이하 생략)”

(2) 카이게 개정본과 안디옥 본문의 결합 (삼하 18: 18)

이 구절에서 필사본 Bceh*wxyba₂는 아래 표에서 보듯 MT와 Ant+(boc₂e₂MNagimuvy*C)에는 없는 본문을 담고 있다. 또 알렉산드리아 사본에 e;ti부터 h-|까지의 본문이 빠져 있다는 점도 눈길을 끈다.

MT	Ant	Cod. A	Cod. B
ואבשלם	kai. Abessalwm e;ti zw/n	kai. Abessalwm	kai. Abessalwm e;ti zw/n
לקח	e;labe		
ויצב לו בחי	kai. e;sthsen e`autw/		kai. e;sthsen e`autw/
את מצבת	sth,lhn		th.n sth,lhn evn h-/ evlh,mfgh
		evlh,mfgh kai. evsth,lwsen auvth.n labei/n th.n sth,lhn th.n	evlh,mfgh kai. evsth,lwsen auvth.n labei/n th.n sth,lhn th.n
אשר בעמק	evn th/ koila,di	evn th/ koila,di	evn th/ koila,di
המלך	tou/ basile,wj	tou/ basile,wj	tou/ basile,wj

<표5>

위의 표에서는 우선 Ant의 히브리어 대본은 MT와 동일하지는 않았지만 거의 비슷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첫 구문이 빠져 있는 알렉산드리아 사본은 헥사플라 본문 (이마도 KR)과 비슷한데,⁴⁰⁾ 이것은 이 구절에서는 알

40) Field(ed.), *Origenis Hexaplorum I*, 573-574쪽.

렉산드리아 사본이 바티칸 사본보다 KR의 요소를 더 잘 보존하고 있다는 뜻이 된다. 문제는 바티칸 사본의 긴 본문이 어떻게 생겨났느냐 하는 것이다. 먼저 위의 본문 전통들을 헬라이어 본문 순서를 그대로 살려 우리말로 옮겨 비교해 보자.

Ant	KR(O', Cod. A)	Cod. B
그리고 압살롬이 아직 살아있을 때 자신을 위해 비석 하나를 가져다가 세웠다. 왕의 골짜기에서.	그리고 압살롬이 죽임을 당했다, 그런데 그가 그것을 세웠었다, 비석을 가져다가, 왕의 골짜기에서.	그리고 압살롬이 아직 살아있을 때 자신을 위해 그 비석을 세웠다. 그곳에서 그가 죽임을 당했다, 그런데 그가 그것을 세웠었다. 비석을 가져다가, 왕의 골짜기에서.

〈표6〉

피사노는 이 본문의 연구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장 합리적이면서 MT에 가까운 것은 Ant(아마도 여기에서는 원-칠십인경) 본문이다. 바티칸 사본은 원-칠십인경 뒤에 자신의 번역을 삽입한 반면, 알렉산드리아 사본은 앞부분을 빼고 바티칸 사본에 있는 카이게 개정본으로 대체하였다.”⁴¹⁾ 하지만 피사노의 설명은 상황을 단순화하여 충분하지 않다. 위의 표에서 밑줄 친 첫 부분이나 굵은 글씨의 둘째 부분이나 그가 직접 한 번역은 아니다. 첫 부분은 Ant의 본문이고 둘째 부분은 헤사플라(아마도 KR) 본문이다. 더욱이 두 부분 모두 사실상 비슷한 진술을 하고 있다: “압살롬이 죽기 전에 비석을 세웠다!” 바티칸 사본 필사자 A는 여기에서 두 본문 전통을 합쳤을 따름이다. 바티칸 사본의 필사자 A가 직접 한 일은 두 부분의 이음새 구실을 하며 “왕의 골짜기”를 앞서 언급하는 evn h-| (“그곳에서”)이다.

(3) 카이게 개정본, 안디옥 본문, Proto-MT의 결합 (삼하 15: 18일부)

41) Pisano, *Additions or Omissions in the Books of Samuel*, 144쪽.

MT	Cod. B	Ant
	ㄱ@kai. pa/j o` Cetti kai. pa/j o` Feletqi kai. e:sthsan evpi. th/j evlai,aj evn th/ evrh,mwl kai. pa/j o` lao.j pareporeu,eto evco,menoj auvtou/ kai. pa,ntej oi` peri. auvto.n kai. pa,ntej oi` a`droi. kai. pa,ntej oi` machtai, e`xako,sioi a:ndrej# ^ㄱ ㄴkai. parh/san evpi. cei/ra auvtou/ ^ㄴ	ㄱ@kai. pa/j o` Cetqi kai. pa/j o` Felqi, kai. e:sthsan evpi. th/j evlai,aj evn th/ evrh,mwl kai. pa/j o` lao.j pareporeu,eto evco,menoj auvtou/ kai. pa,ntej oi` a`droi kai. pa,ntej oi` peri. auvto.n kai. pa,ntej oi` machtai, ㄴtou/ basile,wj ^ㄴ kai. ㄴ e`xako,sioi a:ndrej# ^ㄱ
ㄴ@kai. pa/j o` Cereqqi kai. pa/j o` Feleqqi kai. pa,ntej oi` Geqqai/oi e`xako,sioi a:ndrej# ^ㄴ	ㄴ@kai. pa/j o` Cereqqi kai. pa/j o` Feleqqi kai. pa,ntej oi` Geqqai/oi e`xako,sioi a:ndrej# ^ㄴ	
ㄴ@kai. pa/j o` Cereqqi kai. pa/j o` Feleqqi kai. pa,ntej oi` Geqqai/oi e`xako,sioi a:ndrej# ^ㄴ	ㄴ@kai. pa/j o` Cereqqi kai. pa/j o` Feleqqi kai. pa,ntej oi` Geqqai/oi e`xako,sioi a:ndrej# ^ㄴ	

〈표7〉

이 본문에서는 먼저 서로 다른 두 개의 본문 전승을 찾아볼 수 있다. Ant (원-칠십인경)은 V18^ㄱ만을, MT(아마도 KR)는 V18^ㄴ만을 포함하였을 것이다. 이미 벨하우젠도 언급하였듯이,⁴²⁾ 바티칸 사본에는 두 전통이 결합되어 중복번역이 존재하게 되었다. Ant는 MT에 해당하는 번역이 없는 대신 광야의 “올리브 나무”(evpi. thj evlai,aj evn th/| evrh,mwl < כַּזְיִתִּים בְּדֶרֶךְ)에 대한 긴 문장을 쓴다. Ant에 있는 이 문장은 다윗이 올리브 나무 산길에서 후새를 만나는 다음 행위와 관련이 있다(삼하 15: 30f.). “올리브 나무”라는 이 표현은 이후에는 Ant에만 있다(삼하 15: 23, 28). 그런데 현재 바티칸 사본과 Ant에 있는 구절 “그리고 그들이 광야의 올리브 나무 근처에서 있었다”(kai. e:sthsan evpi. thj evlai,aj evn th/| evrh,mwl)는 헤사플라(O')뿐 아니라 고대 라틴어 번역(L)에도 있어서 이 표현이 적어도 헤사플라 이전의 전통으로 거슬러 올라간다고 보아야 하며 더 나아가 KR도 공유하고 있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확실한 것은 MT와 Ant의 본문은 서로 독립된 전통이고 둘 다 오래된 본문 전통이라는 사실이다.

42) J. Wellhausen, *Der Text der Bücher Samuelis*, (Göttingen: Vandenhoeck und Ruprecht, 1871), 195-196쪽.

Ant	A	kai. pa,ntej oi` a`droi kai. pa,ntej oi` peri. auvto.n kai. pa,ntej oi` machtai, tu/ basileu,j kai. e`xako,sioi a:ndrej
Cod B.	A	kai. pa,ntej oi` peri. auvto.n kai. pa,ntej oi` a`droi kai. pa,ntej oi` machtai, (-) e`xako,sioi a:ndrej
	B	kai. parh/san evpi. cei/ra auvtou
MT	A	kai. pa/j o` Cereqqi kai. pa/j o` Feleqqi kai. pa,ntej oi` Geqqai/oi e`xako,sioi a:ndrej
		וכל-הכרת וכל-הפלת כל-הגת שש-מא ת איש

〈표8〉

결국 바티칸 사본의 필사자 A는 적어도 세 가지의 본문 전통(KR, Ant, Proto-MT)을 알고 있었다. 그는 이 본문 전통들을 수정·연결하며 결합하였다. 연결의 이음새는 계속 이어지는 본문에서 Ant와 MT의 전통이 바티칸 사본에서 어떻게 결합되었는지를 보면 명확해진다.

첫째, V18¹⁻¹

필사자 A는 Ant의 전통을 수용하면서 tou/ basileu,j(《¹ ¹》)를 삭제하였다. 이로써 그는 kai. pa,ntej oi` machtai를 바로 앞에 나온 kai. pa,ntej oi` peri. auvto.n kai. pa,ntej oi` a`droi와 동일한 선상에 두었다.

둘째, V18²

필사자 A는 Ant의 kai도 삭제하였다. 이로써 그는 e`xako,sioi a:ndrej를 앞선 구절들과 동격으로 만들었다.

속격 구문과 계사를 삭제하는 이 과정은 아마도 필사자 A가 MT와 Ant의

두 전통을 합치면서 일관된 형태의 문장 구조를 만들려는 의도였던 것 같다. 바티칸 사본의 본문은 속격 구문이 없어지고 “e`xako,sioi a:ndrej”라는 표현이 계사 없이 반복되어 완전히 동일한 선상에서 나열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A와 A’).

셋째, V18^{르-르}

필사자 A는 kai. parh/san evpi. cei/ra auvtou(“그런데 그들은 그의 수하에 있었다”)라는 구문을 이음새로 하여 두 전통(Ant와 MT)을 결합하였다. 평행을 이루는 Ant와 MT 사이에 삽입된 이 구문으로 바티칸 사본의 본문은 교차대칭 구조(chiasmus; A-B-A’)가 되었고, 이 구문은 문장에서 이른바 이중 기능(double duty function)을 하게 되었다. 곧 동사가 없는 문장에 정동사 기능을 앞뒤로 감당하게 되었다.

이상에서 살펴본 대로 이 문장에서 필사자 A는 기존의 KR에 Ant본문을 수용하고 Proto-MT 전통을 결합하여 새로운 구문을 만들어냈다. 이 과정을 도식화 해 보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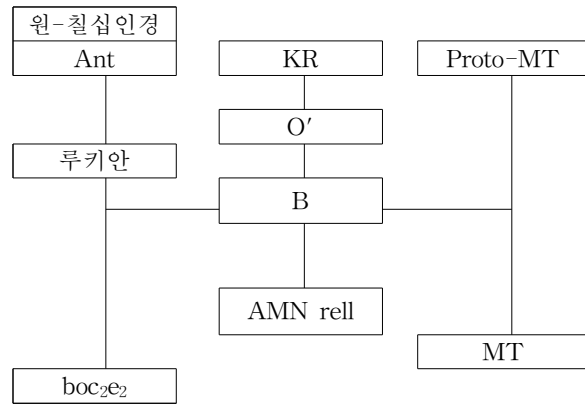


표 9

4. 맺음말

이상의 논의에서 사무엘하 본문을 바탕으로 이끌어 낼 수 있는 바티칸 사본 필사자 A의 특징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바티칸 사본 필사자A는 사무엘서-열왕기서의 aa, bb, gg 부분에서는 원-칠십인경을, bg와 gd 부분에서 주로 카이게-개정본을 필사하였다. 이는 그가 직접 선택한 것이 아니라 이미 헥사플라 이전부터 내려온 전통이었다.

둘째, 바티칸 사본 필사자A는 필사과정의 오류나 사소한 본문 이형들은 행간(suprascr)이나 난외(mg)에 기록하였다. 이 수정 사항들 가운데 많은 부분들은 중세 시대에 바티칸 사본이 대대적으로 보수한 비잔틴 학파⁴³⁾의 수정자가 잉크를 덧칠하여 다시금 눈에 잘 드러나게 하였다.

셋째, 바티칸 사본 필사자 A는 특히 bg 부분에서 단순히 본문을 필사하는 수동적 필사자에 그치지 않고, 자신에게 알려진 다양한 본문 형태들, 곧 카이게 개정본 전통, 헥사플라 전통, 마소라 본문 전통, 안디옥 본문을 결합하여 이형들을 드러내려는 시도를 하였다. 이것은 바티칸 사본 필사자 A의 독특한 개정 활동이라 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행간 수정이나 난외 기입에 대하여는 사무엘하 전체 본문을 다루었고 본문 이형 결합은 주로 카이게 본문 부분의 실례를 다루었다. 본문 형태의 결합에 대해서 사무엘서와 열왕기서 전반에 대한 폭넓은 관찰을 한다면 분명 더 많은 실례가 드러날 것이다. 이는 앞으로 계속해야할 연구 과제로 본다. 그럼에도 지금까지의 논의에서 명확히 알 수 있는 사실은 바티칸 사본 필사자 A는 적어도 수동적이고 기계적인 필사만 하지는 않았다는 사실이다. 그는 본문에서 중요하다 싶은 이형이 있을 경우 필사한 본문이 다양한 행간 수정이나 난외주 형태의 정보를 주고, 또 여러 본문 형태들을 결합하여 이형들을 드러내려는 시도를 하였다. 이 사실은 오늘날 본문 비평을 하려는 이들에게 주는 의미가 크다. 곧 바티칸 사본의 본문을 어떤 특정한 본문 형태를 대변하고 있다고 단정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 본문 형태들과 본문 증거들을 바탕으로 객관화하여 사용해야 한다는 점이다. 그런 뜻에서 사무엘-열왕기, 특히 bg와 gd 부분의 칠십인경 본문 편집도 케임브리지 전통과 칠십인경 영어 번역본에서 주로 채택한⁴⁴⁾ 고문서본(diplomatic)의 방법론은

43) 이에 관해 위의 각주 15)를 보라.

44) A. Pietersma/B. G. Wright(eds.), *A New English Translation of the Septuagint*, (New York/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7). 이 비평본에서 bg와 gd 부분에서는 “Kaige”라고 윗제목을 달고 랄프스의 본문을 번역하였다. 앞서 3-2)에서 앞서 살펴 본 대로 랄프스 역시 항상 카이게 개정본 본문을 편집본문으로 채택하지는 않았으므로, 랄프스의 본문을 엄격한 의미에서 카이게 개정본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칠십인경의 번역에 대한 논의로는, 김 근주 등, “칠십인경 우리말 번역을 위한 연구 1 -창세기 1:1-2:3의 예로-,” 『성경원문연구』 21 (2007), 53-68

유용하지 않으며, 괴팅엔에서 진행하고 있고⁴⁵⁾ 비평편집본(critical text)이나 칠십인경 독일어 번역본에서 한 것처럼⁴⁶⁾ 병행본(parallel text)의 전통이 더 적합하리라고 본다.

5. 참고문헌

- 귄터 스텐베르거, 「미드라쉬 입문」(이 수민 옮김)(유다·그리스도교 고전 입문 총서 III-2) (서울: 바오로딸, 2008).
- 김 근주 들, “칠십인경 우리말 번역을 위한 연구1 -창세기 1:1-2:3의 예로-,” 「성경원문연구」 21 (2007), 53-68쪽.
- 김 정훈, “칠십인경 사무엘-열왕기서의 본문 형태와 그 역사,” *Canon&Culture* 5 (2009), 181-210쪽.
- _____, 「칠십인역 입문 - 본문의 역사와 연구의 실제 (유다·그리스도교 고전 입문 총서 I-1)」 (서울: 바오로딸, 2009).
- Barthélemy, D., *Les Davanciers d'Aquila* (VTS 10), (Leiden: Brill, 1963).
- Brooke, A./N. McLean(eds.), *The Old Testament in Greek according to the Text of Codex Vaticanus, supplemented from other uncial manuscripts Vol. I/1-4; II/1-4; III/1*,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06-1940).
- Cross, F. M. 들(eds.), *Qumran Cave 4 XII 1-2Samuel* (DJD XVII), (Oxford: Clarendon Press, 2005).
- Fernández Marcos, N./J. R. Busto Saiz(eds.), *El Texto Antioqueno de la Biblia Griega I. 1-2 Samuel*, (Madrid: Instituto de Filología C.S.I.C., 1989).
- Field, F.(ed.), *Origenis Hexaplorum quae supersunt; sive veterum interpretum graecorum in totum vetus testamentum fragmenta I*, (Oxford, 1867; reprinted Hildesheim: Georg Olms, 1964).
- Höcker, G., “Die Varianten des cod. Vaticanus der Samuelbücher und ihre Bedeutung für die Textkritik,” (Dissertation an der Universität Rostock, 1905).

쪽을 참조하라.

- 45) 현재 사무엘상은 핀란드의 여성 학자인 아넬리 에멜레우스(A. Aejmelaesus)가, 사무엘하는 스위스의 학자인 필립 위고(P. Hugo)가 편집하고 있다. 그리고 열왕기의 본문은 스페인의 트레볼레 바레라(J. Trebolle Barrera)가 편집하고 있다.
- 46) W. Kraus/M. Karrer(eds.), *Septuaginta Deutsch. Das griechische Alte Testament in deutscher Übersetzung*, (Stuttgart: Deutsche Bibelgesellschaft, 2009). 이 비평본에서 bg와 gd 부분에서는 카이게 개정본으로 랄프스의 본문을, 원-칠십인경으로 안디옥 본문을 병행하여 번역하였다. 현 상황에서는 최선의 선택이었지만 영어 번역본과 동일한 아쉬움은 여전히 남아 있다.

- Istituto Poligrafico e Zecca dello Stato(ed.), *Bibliothecae Apostolicae Vaticanae Codex Vaticanus Graecus 1209. Bibliorum Sacrorum Graecum Codex Vaticanus B*, (Rom: Istituto Poligrafico e Zecca dello Stato, 1999).
- Johnson, Bo, *Die hexaplarische Rezension des 1. Samuelbuches der Septuaginta*, (Lund: Håkan Ohlssons Boktryckeri, 1963).
- Kim, Jong-Hoon, "Zur Textgeschichte von Samuel-Koenige an Hand von 2 Sam 15,1-19,9," M. Karrer/W. Kraus(eds.), *Die Septuaginta-Texte, Kontexte, Lebenswelten* (WUNT 219), (Tübingen: Mohr Siebeck, 2008), 353-368쪽.
- _____, *Die hebräischen und griechischen Textformen der Samuel- und Königebücher. Studien zur Textgeschichte ausgehend von 2Sam 15,1-19,9* (BZAW 394), (Berlin: Walter de Gruyter, 2009).
- Klostermann, A., *Die Bücher Samuelis und der Könige* (Kurzgefasster Kommentar zu den heiligen des Alten und Neuen Testaments), (Nördlingen: C. H. Beck, 1887).
- Kraus, W./M. Karrer(eds.), *Septuaginta Deutsch. Das griechische Alte Testament in deutscher Übersetzung*, (Stuttgart: Deutsche Bibelgesellschaft, 2009).
- Kreuzer, S., "Towards the Old Greek: New Criteria for the Analysis of the Recensions of the Septuagint Especially the Antiochene/Lucianic Text and Kaige Recension," M. K. H. Peters(ed.), *XIII Congress of the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eptuagint and Cognate Studies* (SCS 55), (Ljubljana, 2007; Atlanta: SBL, 2009), 239-253쪽.
- Kyle McCarter, P., *II Samuel* (The Anchor Bible 9), (Garden City/New York: Doubleday & Company, 1984).
- Milne, H. J. M./T. C. Skeat, *Scribes and Correctors of the Codex Sinaiticus*, (London: British Museum, 1938).
- Pietersma, A./B. G. Wright(eds.), *A New English Translation of the Septuagint*, (New York/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7).
- Pisano, S., *Additions or Omissions in the Books of Samuel* (OBO 57), (Freiburg/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84).
- Rahlf's, A., "Alter und Heimat der vatikanischen Handschrift," *Nachrichten von der (Kgl.) Gesellschaft der Wissenschaften zu Göttingen* (1899), 72-79쪽.
- _____, 들(eds.), *Septuaginta Vetus Testamentum Graecum Auctoritate Academiae Scientiarum Göttingensis editum*,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31-현재).

- _____, *Verzeichnis der griechischen Handschriften des Alten Testaments* (MSU II) (Göttingen, 1914); D. Fraenkel(rev.), *Bd. I,1 Die Überlieferung bis zum VIII. Jahrhundert* (Septuaginta Vetustestamentum Graecum Auctoritate Academiae Scientiarum Gottingensis editum Supplementum),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2004).
- _____(ed.)/R. Hanhart(rev.), *Septuaginta. Editio altera*, (Stuttgart: Deutsche Bibelgesellschaft, 2006).
- Roberts, B. J., "The Old Testament: Manuscripts, Text and Versions," J. Maier/V. Tollers(eds.), *The Bible in its Literary Milieu*, (Grand Rapids, MI: Eerdmans, 1979), 212-234쪽.
- Skeat, T. C., "The Codex Vaticanus in the Fifteenth Century," J. K. Elliot(ed.), *The collected Biblical Writings of T. C. Skeat*, (Leiden: Brill, 2004), 122-134쪽.
- _____, "The Codex Sinaiticus, the Codex Vaticanus and Constantine," *JThS* 50 (1999), 583-625쪽.
- Stoebe, H. J., *Das zweite Buch Samuelis* (KAT VIII2), (Gütersloh: Gütersloh Verlaghaus, 1994).
- Thackeray, H. St. J., *The Septuagint and Jewish Worship. A Study in Origin*, (London: Oxford Univ. Press, 1921).
- Wellhausen, J., *Der Text der Bücher Samuelis*, (Göttingen: Vandenhoeck und Ruprecht, 1871).

검색어

바티칸 사본 필사자 A

사무엘하

안디옥 본문

칠십인경

카이게-개정본

투고일: 2009년 10월 2일

심사일: 2009년 10월 19일

게재확정일: 2009년 12월 3일

Besonderheiten des Cod. B unter Berücksichtigung des
ersten Abschreibers(A) ausgehend vom Text des 2. Samuelbuches

Jong-Hoon Kim, Dr.Theol.
Professor, Department of Theology
Busan Presbyterian University

Beim vorliegenden Beitrag geht es um die textkritischen Besonderheiten des Cod. B (Kodex Vaticanus; Rom, Bibliotheca Vaticana graeci 1209), die älteste griechische Handschrift von denen, die die ganze Bibel enthalten. Dieses wurde eigentlich von zwei Abschreibern(A und B) abgeschrieben. Abschreiber A soll den Text von Gen 1: 1 bis 2Kön 19: 11 abgeschrieben haben, und Abschreiber B den Rest der AT-Bücher sowie das NT.

Bekanntlich in den meisten griechischen Handschriften von Sam-Kön, einschließlich des Cod. B, sind hauptsächlich zwei unterschiedliche Textformen hintereinander zu erkennen, nämlich die Ur-LXX (1Sam 1: 1 - 2Sam 11: 1; 1Kön 2: 12 - 21: 43) und die hellenistisch-frühjüdische Rezension, sog. Kaige-Rezension (KR; 2Sam 11: 2 - 1Kön 2: 11; 1Kön 22: 1 - 2Kön 25: 30). Für die KR-Abschnitte spiegelt der sog. antiochenische Text(Ant), der in einigen mittelalterlichen Handschriften(19 108 82 93 127) erkannt wurde, die ursprüngliche Textform wieder. Wenn man aber den Text des Cod. B in den Kaige-Abschnitten mit den anderen Textzeugen genau vergleicht, erkennt

man einige Testkombinationen zwischen den verschiedenen Texttraditionen (Proto-MT, Ur-LXX[Ant], KR); sie sind scheinbar verdoppelt. Auf dieses Phänomen wurde noch nicht in Bezug auf die Aktivität des Abschreibers in Frage gekommen.

Es ist zunächst zu betrachten, dass in Cod. B einige supralineare und marginale Korrekturen zu erkennen sind, die auf den Abschreiber A zurückgehen können. Gewiß bezeichnete der Abschreiber A seine Schreibfehler oder die unwichtigen Varianten supralinear oder marginal. In diesem Zusammenhang sind die Textkombinationen im Cod. B als die textkritische Aktivität des ersten Abschreibers (A) zu betrachten. Im Beitrag wurden drei Kategorien der Textkombinationen des Cod. B analysiert: (1) Proto-MT + KR (2Sam 15: 19b-20); (2) KR + Ant (2Sam 18: 18); (3) KR + Ant + Proto-MT (2Sam 15: 18). Nach der Analyse ist klar, dass diese Kombinationen keine Verdopplung sondern die künstliche Arbeit des Abschreibers.

Die Ergebnisse der Analyse sind: (1) In den KR-Abschnitten schrieb der Abschreiber A die KR als Haupttext ab; (2) Die Schreibfehler bzw. unwichtigen Varianten bezeichnete er supralinear oder marginal; (3) Bei den ihm wichtigen Varianten wählte er nicht eine Textform zu seinem Haupttext aus sondern kombinierte die Varianten künstlich. Deshalb darf man den Abschreiber A nicht bloß als einen "Ab"schreiber sondern als einen aktiven Textkritiker bezeichnen.

Keywords

Antiochene Text
Codex Vaticanus(Cod. B)
Kaige-Recension
2Samuel
Septuagint